

# ‘문화공연’ 피어나는 광주 도심



광주시립창극단이 오는 5일 오후 광주시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풍류 in 광주'를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오른쪽은 같은 날 ACC상상마당에서 공연하는 팝 밴드 '원보틀'.



올해 광주 도심 곳곳이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물든다. 익숙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가 시민들의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2025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이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당신 곁에'를 주제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다.

**광주시·광주문화재단 주최**  
**5일부터 '찾아가는 문화공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

**푸른길공원·상무시민공원 등**  
**이웃과 자연 속 문화 향기 향유**  
**오페라·사물놀이·댄스 등 다채**

공연무대는 동구 ACC 상상마당을 비롯해 서구 상무시민공원, 남구 푸른길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 광산구 쌍암공원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다. 공연이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려, 일상의 분주함과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잠시나마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예술이 주는 감동을 나누며 힐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20회)이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아울러 광주문화재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들도 40회에 걸쳐 특색 있는 무대를 전한다. 특히 공연이 동·남·광산구와 서·북구에서 매주 번갈아가며 같은 시간대에 열린다는 점도 이채롭다. 시민들이 '이날만큼은 집 앞을 나서면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색채

를 지닌 공연들이 도심 곳곳을 문화의 울림으로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무대는 오는 5일 동·남·광산구에서 펼쳐진다. 오후 1시 30분 시립창극단이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풍류 in 광주'를 주제로 교방무, 판소리, 아쟁산조, 남도민요, 사물놀이 등 우리 전통음악을 선보인다. 관객들은 산책길을 따라 걷다가, 흥겨운 가락이 전하는 여운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동구 ACC상상마당에서 여성 팝 일렉트로닉 밴드 '원보틀'이 'Fall'을 비롯한 자작곡과 함께 김광석의 명곡 등을 들려준다. 같은 시간, 광산구 쌍암공원에서는 창작 국악과 기획 공연을 펼치는 '외씨 버선'의 익숙한 대중음악과 국악이 어우러진 특

별한 무대가 예정돼 있다. 특히 가요 3중주로 연주하는 비틀즈의 명곡들은 친숙한 멜로디에 국악 특유의 서정미를 더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오는 12일에는 서구와 북구에서 각각 시립교향악단과 시립창극단의 공연이 열린다. 극장에 서만 접할 수 있었던 수준 높은 음악을 자연이 주는 운치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이외에도 7080포크송과 팝페라, 발레, 스트리트댄스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이 시민 곁으로 찾아간다. 특히 가정의 달인 오는 5월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요들송·컨트리뮤직과 같은 세계 민속 음악,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 등이 공연을 아름답게 물들일 예정이다. 이색적인 뮤지컬도 마련돼 있다. 극단 '유포 씨어터'는 무등산을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들의 시간여행을 그린 뮤지컬 '시간의 숲'을 ACC상상마당 무대에 올린다. 한편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은 걷거나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이용해 각자의 생활 공간 인근 공원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며 "답답하고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다채로운 공연이 열리는 공원을 찾아 광주만의 특색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예술+과학 융복합 국내외 창작자 지원

ACC, 30일까지 공모... '아트&테크놀로지' 등 5개 분야



지난해 '믹스드 리얼리티' 기술을 활용한 레이 엘시의 작 '미래를 위한, 미래의아카이브'. <ACC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욱·ACC)은 '2025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에 참여할 국내외 창작자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 ACC는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올해로 10년째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다분야 전문가들의 미래 지향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개발과 제작, 시연을 지원한다. 올해 주제는 '지능시대'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지능시대를 상상하며 데이터 세계 속 제3의 지능과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모집 분야

는 '아트&테크놀로지'(4팀), '키네틱 미디어'(1팀), '오디오비주얼'(1팀), '믹스드 리얼리티'(1팀), '이미지브 사운드'(1팀) 등 5개로, 분야별 각 2000~3000만원의 프로젝트비를 지급한다. 이번 공모는 주제에 부합하면서 아트&테크놀로지 분야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획력과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예술가, 전문가, 연구자, 엔지니어 등 창작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상욱 직무대리는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의 융복합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실험적인 콘텐츠를 선보일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출판인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

尹 파면 촉구 출판인 연대·한국출판인회의 성명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인 1086명으로 이뤄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는 2일 배포한 성명에서 "윤석열은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며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의 근간이며 일이며 밥이며 삶, 그들은 거침없이 통제하려 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전격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요구했다. 출판인회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서도 출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